

고흥 출신 김현웅 신임 법무장관 내정자

### 박대통령 家와 2대째 인연 현정부 5번째 호남출신 장관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21일 오후 소감을 밝히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철 대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21일 내정된 김현웅(56·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검장은 특수수사·기획·법무행정 등에 두루 정통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현역 고검장이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것은 김영삼 정부 임기 말 법무장관을 지낸 김중구(74) 전 서울고검장(1997년 8월~1998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1959년 고흥에서 출생해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법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출근 검사 생활을 해왔다.

광주일고 시절에는 복싱 도장에 다녔을 정도로 운동신경이 뛰어났다. 문인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이 고교 동기다. 이명박정부 이래 호남 출신 법무장관은 이귀남(64·12기)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총장·대검찰장·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에 영남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점을 고려한 지역 안배 인사라는 분석이 많다.

김 내정자의 부친은 판사 출신인 김수 전 의원이다. 그는 1979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성·고흥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이

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끌던 민주공화당에 입당, 법사분과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이미 2013년 12월부터 1년2개월간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을 보좌하며 법무차관으로 법무행정을 경험한 바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호남 출신 장관 임명은 방하남 고용노동부(안도), 진영 보건복지부(고창), 김관진 국방부(전주), 이기권 고용노동부(함평) 장관에 이어 5번째다.

이와 함께 김진태 검찰총장(14기)보다 기수가 낮은 김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함에 따라 '기수 역전' 인사가 이뤄진 것도 주목된다. 기수와 서열 문화를 중시해온 박 대통령이 이번 법무장관 인선에서 기수역전 인사를 하게 된 배경으로는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고흥(56·사법시험 26회) ▲서울대 법대 ▲대검 검찰연구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검찰기획관 ▲춘천지검장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 ▲법무차관 ▲서울고검장 /박지경기자jzkpark@kwangju.co.kr

## “U대회 메르스 차단 범정부 기구 만들자”

광주시 “차관급이 본부장 맡아 정부가 운영” 전의

발열감지기 118대·선별진료소·격리시설 설치 요청

광주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 참가가 예상되는 광주 U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메르스 대비 범정부 기구 구성을 위한 메르스 대비 범정부 기구 구성을 건의했다. <관련기사 8·20·21면>

메르스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 세계에서 추가 참가 등록이 이어지면서 이날 현재 145개국 1만 3244명의 선수단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지금까지 최대 규모는 2013년 러시아 카잔 대회로 참가자는 1만1759명이었다.

문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20일 오전 정중심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 행정부시장 영상회의에서 광주 U대회를 앞두고 메르스 차단을 위한 정부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윤창현 시장이 본부장을 맡은 '광주 U대회 메르스 관리 대책본부'를 정부 차관급이 본부장을 맡아 중앙 정부가 운영해 야 한다는 게 광주시의 의견이다.

또 선수촌 병원에 선별진료소 한 동과 격리시설 5곳을 설치하고, 선수촌과 경기장에 발열감지기 118대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인 부시장은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하면서 대외 신인도가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원활하게 공조가 이뤄지고 있지만, 중앙 정부가 나선다면 국제적인 신뢰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메르스 확진 환

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메르스 관리 대책본부를 구성해 가동하는 등 메르스 청정 지역 유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전 세계에서 2만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U대회를 앞두고 방역 시스템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메르스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 장비인 발열감지기마저 예산·인력난 등으로 축소 설치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언론의 '광주 메르스 환자 발생 의혹' 오보 등으로 광주의 메르스 청정 지역 이미지 등이 훼손되면서 U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시민과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범정부적 메르스 대비 전담 기구의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세계 대학생의 입국 준비를 돕고 있는 허기석 광주시 U대회지원과장은 “전문 의료진들로 구성된 민간합동대책본부를 가동해 최일선에서 메르스를 차단하

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선수촌과 경기장에 첨단 장비와 최강의 의료진을 배치해 반드시 안전·안심대회로 치러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의 메르스 장기화 우려에도 전 세계에서 참가 선수단의 추가 등록은 이어지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145개국, 1만3244명(선수 7516명, 임원 3540명, 심판진 544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이번 대회 흥행의 키를 쥔 북한은 21일 까지 하지 않았지만, 26일 선수촌 개촌(입촌)일 전까지 추가 등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참가 가능성은 남아 있다. 북한은 애초 육상 등 6개 개인종목과 여자축구, 핸드볼 등 2개 단체 종목의 선수와 임원 등 108명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기계체조 등 대진표가 마감된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참가가 가능한 상황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北 선수단이며, 우리는 만나야 한다”

광주·전남 재야 원로 45인 U대회 동참 호소 오늘 기자회견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7월 3일)을 앞두고 광주 시민들과 재야원로들이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지역 재야원로들은 22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 선수단

과 응원단의 참여를 북한 당국에 직접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6년 6·15 선언 기념식의 북측 대표단 광주 방문 당시 환희와 감동이 아직도 진한 여운으로 남아 있기에 북측 참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이번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한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북측 당국의 전향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정부 당국도 이와관련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도 당부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전남지역 45명의 지역재야원로들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광주 북구 효령동 효령노인복지타운 회원 100여명이 복지타운 앞마당에서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이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참석을 통해 통일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하며 소망 풍선을 하늘로 띄우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윤창현 광주 U대회 조직위원장(광주시장)이 직접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U대회 참가를 호소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광복 70주년, 6·15 선언 15주년에 열리는 이번 광주U대회는 (북측 선수단이 참가할 경우)남북 교류 활성화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모든 편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메르스 종료선언 2~3개월 후 가능”

### 최종환자 발생후 28일간 확진 없어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발생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방역 당국이 조심스럽게 종식 기준 설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아직 산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본격적으로 메르스 종식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메르스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면 종식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와 기준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21일 메르스 일일상황보고 브리핑에서 “메르스 종식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

는 단서를 달면서 “국내 전문가와 세계 보건기구(WHO)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종식 기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상태”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적어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잠복기간에 추가 환자, 신규 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메르스 사태 종식의 조건으로 밝힌 바 있다. 정 센터장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2배의 기간에 신규환자 발생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종식 기준으로 삼았다”며 “(메르스) 에볼라와 같은 다른 감염병 종식

기준을 참고해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처럼 WHO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최대 21일인 점을 고려해 지난달 9일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종식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 3월 27일 마지막 발병자가 숨진 이후 에볼라 바이러스 잠복기의 두 배인 42일 동안 라이베리아에서 새로운 발병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메르스 종식에 관한 선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수 주 동안 산발적으로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최종 환자 발생 이후 28일 이후가 종식되는 시점이라면 지금보다 2~3개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메르스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순천경찰, 여주시 공무원 조사

순천경찰은 19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사회적관계망(SNS)에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여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께 보성 메르스 확진자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 내용으로 여주시청 총무과에서 작성한 ‘동향 보고’를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유포 사실을 확인하고 유포 경위와 의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

상담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